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삼천리자전거(024950)

유통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신재영 전문위원
------	------------	-----	----------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주)(TEL.02-3215-24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자전거(024950)

자전거에서 Personal Mobility 전문기업으로 변신

기업정보(2020/10/14 기준)

대표자	신동호
설립일자	1979년 3월 29일
상장일자	1995년 1월 4일
기업규모	보호대상중견기업
업종분류	유통
주요제품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시세정보(2020/11/2 기준)

현재가(원)	8,26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96억 원
발행주식수	13,273,577
52주 최고가(원)	14,950
52주 최저가(원)	2,980
외국인지분율	4.29%
주요주주	지엘엔코(주)의 대주주 김석환

■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자전거도로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법률상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동킥보드가 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며 전동킥보드 제조회사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동사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동사는 자전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전기자전거도 잘 만든다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스펙 강화 및 라인업 확대와 함께 안전과 디자인을 강조한 어린이 자전거 라인업 강화 그리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브레베베를 중심으로 유아용품 사업을 확대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실적 개선으로 흑자 전환

코로나19 사태의 언택트 환경에서 전기자전거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770.1억 원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유동자산이 증가 추세이다. 최근 4개년 영업이익은 2016년 57.9억 원, 2017년 2.5억 원, 2018년 -169.8억 원, 2019년 -82.4억 원으로 감소세였으나, 2020년 2/4분기 영업이익은 90.9억 원,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한 106.3억 원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110	-22.21	2.5	0.23	33.4	3.01	-3.62	2.04	60.67	278	8,500	32.61	1.07
2018	796	-28.32	-169.8	-21.33	-153.6	-19.30	-14.59	-9.34	81.73	-1,053	7,367	N/A	0.87
2019	871	9.41	-82.4	-9.46	-83.2	-9.55	-9.21	-5.39	84.52	-584	6,586	N/A	0.82

기업경쟁력

사업 다변화

- 자전거 회사에서 전기자전거 회사로 변신
- 미니벨로, MTB, 시티형 등 다양한 전기자전거 출시
- 유아용 카시트와 유모차 사업 강화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으로 사업 확대

- 자전거도로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수요 증가 예상
-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출시하며 시장 환경에 대응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기자전거 라인업

- 전기자전거 스펙 강화 및 라인업 확대
-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군 확대
- 안전과 디자인을 강조한 어린이자전거 라인업 강화
- 카시트와 유모차 제품군 다양화

적용제품

제품군

전기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확대

- 미니벨로형 : 팬텀Q 모델
 - 유압식 브레이크 적용으로 안정적인 제동력 확보
- MTB형 : 팬텀 HX 모델
 - 제동력이 뛰어난 디스크 브레이크로 성능을 강화
- 시티형 : 팬텀 이콘 플러스 모델
 - 1회 3시간 충전에 최대 80km까지 주행
- 전동스쿠터 : 팬텀이지 ST
 - 킥보드 형태 프레임으로 승하차가 용이
- 전동스쿠터 : 팬텀 시터 10
 - 14인치 광폭타이어와 듀얼 서스펜션 적용

시장경쟁력

전기자전거 시장의 성장

- 코로나19 언택트 환경에서 시장 성장

전기자전거 시장 추세



전동킥보드 사용자 추세(앱 사용자 기준)

연도	사용자	성장률
2019년 4월	37,294명	사용자수가 6배 증가
2020년 4월	214,451명	

최근 변동사항

2020년 상반기 흑자전환

- 2020년 2/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한 529.9억 원을 시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770.1억원을 시현
- 2020년 2/4분기 영업이익은 90.9억 원,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한 106.3억 원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

향후 전망

- 친환경 추세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동킥보드는 작고 경제성이 높으며 대중교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개인교통 솔루션으로 동사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전망

I. 기업현황

국내 자전거 시장점유율 부동의 1위 기업, 삼천리자전거

삼천리자전거는 모태 기업인 1944년 경성정공(주) 시절부터 70년 이상 자전거 수출시장 개척, 경제개발 계획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여 국내 자전거 시장과 문화를 선도해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대표 기업이다.

■ 개요

삼천리자전거(이하 '동사')는 자전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9년 3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1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다. 동사의 모태는 1944년에 설립된 경성정공으로 국내 최초로 자전거를 생산한 기업이며, 1979년 삼천리자전거공업(주)로 자전거 사업이 분리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자전거 수출시장 개척, 경제개발 계획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동사 CI의 각 사물들은 회사 마크를 중심으로 전개된 CI(Corporate Identity)와 토탈 브랜드 마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BI(Brand Identity)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상징요소인 '3000'을 유지하며, 안정감과 현대적인 감각의 마크형태와 화합, 발전 등을 상징하는 적색의 기존 색상을 유지한 기업 마크는 2000년대의 종합 레저 스포츠의 전두주자로 발전하겠다는 기업의 장기경영 전략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림 1] 삼천리자전거 CI



*출처: 삼천리자전거

■ 계열회사

동사는 3개의 계열회사로 (주)쁘레베베, (주)스마트, 참좋은여행(주)을 보유하고 있다.

(주)쁘레베베는 유모차, 카시트 등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22일에 설립되었다. 동사는 2015년 12월 31일 30,6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 2월 6일 자사주 소각, 2019년 5월 28일 유상증자로 90,000주를 취득, 2019년 비지배지분 29,400주를 추가 취득하여 현재 보유한 지분율은 100%이다.

(주)스마트는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의 목적으로 2010년 11월 08일 설립되었다. 동사는 201

6년 2월 19일 400,000주의 주식을 장외 취득하였고, 2019년 유상증자 800,000주 및 무상감자 1,080,000주를 실시하여 현재 보유한 지분율은 100% 이다.

참좋은여행(주)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동사는 2013년 06월 17일 273,329주를 장내 취득하였고, 2016년 12월 27일 80,000주 그리고 2020년 03월 20일 500,000주를 장내 취득하여 현재 보유한 지분율은 44.72%이다.

[표 1] 계열회사 (단위 : %)

회사명	업종	설립일	상장여부	지분율
(주)쁘레베베	유아용품 도소매업	2009.05.22	비상장	100%
(주)스마트	자전거 도소매업	2010.11.08	비상장	100%
참좋은여행(주)	여행업	2007.02.20	상장	44.72%

*출처: 삼천리자전거 분기보고서

■ 매출 현황

동사의 사업부문은 상품매출로서, 중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OEM)으로 제작된 자전거를 국내로 수입하여 유통 및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이다.

자전거 업계에 V자 실적반등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전거 판매가 급증한데 이어 오는 12월부터 개정된 자전거도로법으로 전동킥보드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가파른 실적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사를 포함한 자전거 업체들의 매출은 2015년 이후 하락세였으나, 2020년 코비드19로 인하여 야외활동에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동사 2020년 상반기 자전거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65% 이상 급성장하였다.

[표 2] 매출 구조 (단위: 백만 원, %)

품목	구분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상품 (자전거, 유모차 등)	수출	-	-	14	0.02	76	0.10
	내수	77,010	100	87,092	99.98	79,536	99.90
	계	77,010	100	87,106	100	79,612	100

*출처: 삼천리자전거 분기보고서

■ 전기자전거와 공유자전거의 성장

경찰청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동스쿠터 팬텀 시터 10은 친환경 이동 수단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이다. 페달링 없이 전기로 주행하는 시티형 전동 스쿠터로서 체력 소모 없이 근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일반 오토바이형 스쿠터는 제품 등록, 보험 등 이용 시 필요 조건이 많고 조작이 복잡한 반면, 전동 스쿠터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같이 면허만 소지하면 바로 주행 가능하다.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보쉬(BOSCH)사의 고성능 모터를 채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폭이 넓은 14인치 광폭타이어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듀얼 서스펜션을 장착하여 안정적이며, 오토바이에 비해 조작이 간편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환경 보호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 교통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자전거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공공자전거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동사 또한 2018년 인천시 연수구와 '주민자전거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총 1천대의 주민자전거를 공급하였다.

[표 3] 삼천리자전거 브랜드 현황

브랜드	설명
PHANTOM	전문 전기자전거 브랜드로서 고급형부터 가성비가 뛰어난 보급형까지 다양한 제품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음. PAS, 스로틀, PAS/스로틀, 겸용 3가지구동방식 모두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음.
CELLO	국내 대표 하이엔드 퍼포먼스 자전거 브랜드 MTB, 로드 제품을 중심으로 다이내믹한 주행을 선보이며, Rider Focused 라는 슬로건 아래 라이더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세분화된 지오메트리아와 핏을 제공함.
LESPO	레스포는 레저(Leisure)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로서 활동감, 젊음 등을 상징하는 삼천리자전거의 미래 이미지의 표현으로,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팬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PPALANCHIA	아팔란치아는 역동적인 산악 스포츠의 감동과 도시적인 감수성이 어우러진 자전거.
ALLUS	도시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세련된 라이딩을 즐기는 라이더를 위한 자전거용품 전문 브랜드.
SAMTRIKE MODI	다가능 세발자전거로 유모차와 자전거의 접목형태로 성장 맞춤 시스템 세발자전거.

*출처: 삼천리자전거 분기보고서

공유자전거 산업 활성화로 사회적으로 자전거 이용문화가 형성되고 개인의 자전거 경험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자전거 경험이 증가하면서 개인 자전거 소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전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유산업 자체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자전거를 제조하여 국내 대리점 및 대형할인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 산악용, 접이용, 씨티용, 아동용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 온라인마켓 강화

자전거는 조립과 배송 이슈로 온라인쇼핑이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동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온라인몰인 ‘삼바몰’을 2018년 오픈하고 대리점과 연계한 ‘O2O서비스’와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실시하였다. ‘삼바몰’은 자전거 전문가가 제품을 직접 조립하여 배송, 또는 주문자가 인접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구매해도 오프라인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배송서비스이며, 동사 전체 배송 중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전기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자전거 산업의 국내 시장 트렌드는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용품 및 부품 구매 확대, 로드바이크에서 MTB로의 선호도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전기자전거의 경우 13세 이상이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25km/h 이하로 주행할 시 이륜자전거로 분류되어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안전용품, 계절별 특화된 용품,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전용부품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인구에서 장년층이 증가하고 단체라이딩 및 동호회가 활성화되면서 MTB 선호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동사 경영진은 자전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전기자전거도 잘 만든다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전기자전거가 대중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전거를 부담 없이 즐겨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다.

[그림 2] 국내 시장 트렌드



*출처: 삼천리자전거

II. 시장 동향

전기자전거 전문기업, 삼천리자전거

국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웰빙 열풍이 겹치면서 자전거 수요가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시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전기자전거 시장

전기자전거는 인력으로 구동되는 자전거에 모터와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가격이 전기자동차나 전기바이크와 비교할 때 저렴한 장점이 있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KIST 기술정책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전기자전거(e-bike) 시장은 연평균 9.00%, 2018년 211억 달러(한화 약 24조)에서 2023년 386억 달러(한화 약 44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교통 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자동차보다 저렴하며,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통근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또한, 관광객들의 수요 증가 역시 시장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그림 3]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



*출처: KIST 기술정책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18년 140억 2천만 달러로 추정되어 최대 규모의 전기자전거 시장으로 평가된다. 중국 주요 도시의 전기자전거 사용금지로 인해 양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으나, 한국과 일본, 인도, 대만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북미와 유럽 역시 계속해서 자동차에서 전기자전거로 이동수단이 바뀌는 추세이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전거 시장의 큰 성장이 예상된다.

전기자전거 시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반 자전거 생산 업체들의 전기자전거 매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점과 경량 전기자전거가 개발되면서 소비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가격 인하로 인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이용한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시장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판매 후 국내업체들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편으로 경쟁력이 약한 편인 점과 일반 자전거 대비 모터, 배터리로 인한 무게가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은 시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한축으로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플랫폼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기술력이 필요하며, 기존 자전거 제조사 이외에

도 자동차 부품회사까지 전기자전거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퍼스널 모빌리티는 유럽과 북미, 중국 등을 시작으로 공유서비스 모델 구축이 활발하다. 신시장 개척에 관심을 두는 완성차 업체들도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사업 모델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주목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신문이 인용한 KOTRA 프랑스 파리 무역관자료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의 전동킥보드 판매 대수는 23만3000대로 전년보다 129%나 늘었다. 파리는 전동킥보드에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보급을 장려했다. 공유 서비스로 공급되는 전동킥보드까지 포함하면 파리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는 4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크기가 작아 주차난 걱정 없이 통학 및 통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며, 10~20km/h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어 단거리를 이동하기에 적합하고,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에서 최종목적지까지 근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므로 내연기관 이동 수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 및 교통 혼잡 절감 효과가 크며,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보행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노약자 및 개인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의 60%가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퍼스널모빌리티를 레저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대수를 종류별로 보면, 업계에서는 2016년에 전기자전거 1만대, 전동킥보드 2만대~2만 5천대, 전동휠 1만 5천대~2만대, 전동스쿠터 5천대~1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의 수요가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가 늘면서, 전동휠의 경우 병렬형 바퀴 배치와 자이로센서로 지면의 요철에 민감하여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비슷하게 손잡이가 있으며 바퀴가 직렬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보다 친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수준의 IT기술력 및 인프라, 에너지 저장 기술,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 증가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환경요인이 양호한 점, 전기기반 이동수단의 최대 생산 및 수요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확대 추세에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의 완성차 업체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장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참여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술 후발주자로서 자금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선진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증가 추세인 점,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미비한 점은 시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비교

	 Lime	 KICKGOING	 지빌리티	 elecle	 고고씽	 SWING
	라임	킵고잉	지쿠터	일레클	고고씽	스윙
운영 대수	500대	3000대	900대	100대 이상 (미공개)	600대	1200대
기본료	1200원	1000원 (최초 5분)	1000원 (최초 7분)	500원 (최초 5분)	1000원 (최초 5분)	0원
분당 이용료	12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200원
10분 이용 시 요금	3000원	1500원	1300원	1250원	1500원	2000원
모델명	Gen 3.0 (자체 개발)	샤오미 미지아2, 세그웨이 ES-4	세그웨이 ES-4	세그웨이 ES-4	자체 개발	자체 개발
출력	250W	최대 400W(미지아2), 300W(ES-4)	300W	300W	350W	350W
제한 속도	22km/h	25km/h	15km/h	25km/h	25km/h	25km/h
이용 가능 시간	상시 운영	07:00~22:00	07:00~20:30	07:00~22:00	상시 운영	08:00~01:00

*출처: motorgraph.com

대도시화의 진전 및 자동차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이 급증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와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 기반 개인이동수단의 글로벌 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액셀러레이터, 자이로센서 등의 연관 산업에 대한 기술력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Ⅲ. 기술분석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동사는 전기자전거 스펙 강화 및 라인업 확대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통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선도, 안전과 디자인을 강조한 어린이 자전거 라인업 강화, 인기 자전거의 제품력 향상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및 자전거 업계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 전기자전거 스펙 강화 및 라인업 확대

소비자가 전기자전거를 구입시 제품 선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도와 안전 그리고 A/S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우선 이용 목적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선택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용 용도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출퇴근용 혹은 기분전환을 위한 라이딩을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차감이 편안한 '시티형'이 좋으며,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이동하는 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산악 라이딩 등 스포츠나 레저를 겸하기 위해서는 'MTB형' 전기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이용하거나, 자동차에 간편하게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접이식 제품이 유용하다.

전기자전거는 총 3가지의 구동 방식이 있다. 라이더의 페달링과 배터리 전기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는 페달 어시스트(PAS, Pedal Assist System), 배터리의 힘만으로 이동하는 스로틀(Throttle),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 중에서 자신의 이용 용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5] 동사 전기자전거 주요 제품

타입/모델	형상	특징
미니벨로형/ 팬텀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충전시 최대 100km까지 주행. - 유압식 브레이크 적용으로 안정적인 제동력 확보. - 프레임 일체형 헤드라이트와 사이드 LED 장착. - 가격 : 99만원
MTB형/ 팬텀 H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충전시 최대 110km까지 주행. - 제동력이 뛰어난 디스크 브레이크로 성능을 강화. - 짐받이 등 생활 편의 기능도 보완. - 가격 : 97만원

<p>시티형/ 팬텀 이콘 플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3시간 충전에 최대 80km까지 주행. - PAS 1단계에서 PAS 4단계로 동력 단계 확대. -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칼라 출시. - 가격 : 77만원
-------------------------------	---	--

*출처: 삼천리자전거.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로 이동과 운동 효과를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전력의 도움을 받아 신체 피로도에 맞춰 운동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장시간 무리 없이 이동과 운동을 겸할 수 있다.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레버 조작만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체력 소모 없는 편한 언택트 이동 수단을 찾는 자전거 출퇴근자에게 제격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PAS 방식만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예 따라 '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으로 앞으로는 '스로틀 파스 겸용' 방식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팬텀 Q와 팬텀 이콘 등 17종의 전기자전거를 출시하며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기 차종인 '미니벨로' 전기자전거와 중년에게 인기 많은 'MTB형' 전기자전거, 도심에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티형'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2인승 전기자전거'와 '삼륜 전기자전거' 등 특수 전기자전거의 라인업까지 자전거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차종을 내놓았다.(출처:스포츠경향)

동사의 미니벨로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보관이 편리하고 교통연계가 용이해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차종이다. 2019년 출시한 미니벨로 접이식 '팬텀 마이크로'는 대학생과 직장인들 수요가 많았으며, 이러한 젊은 층의 선호를 반영해 동사는 2020년 미니벨로형 전기자전거를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출시하였고, 미니벨로 대표 신제품인 '팬텀Q'는 전작 대비 배터리 용량을 증대하였다. 1회 충전시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장거리 출퇴근 및 등하교에 용이하며, 매일 배터리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그리고 유압식 디스크브레이크를 적용해 안정적인 제동력도 갖췄다. 프레임 일체형 헤드라이트와 사이드 LED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라이트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야간에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MTB형 모델인 팬텀 HX는 1회 충전에 최대 110km까지 주행 가능해 장거리 이동에 용이한 전기자전거로서, 제동력이 뛰어난 디스크 브레이크로 기능과 성능을 강화했으며 짐받이 등 생활 편의 기능도 보완하였다. 팬텀 HX의 가격은 97만원으로 기존 MTB형 전기자전거의 높은 가격 장벽을 낮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티형 전기자전거는 부담없이 타기 좋은 모델로서 2020년 5종을 출시하였다. 신제품 팬텀 이콘 플러스는 2019년 국내 최초 60만원대 전기자전거로 전기자전거의 대중화를 선도한 팬텀 이콘의 후속작으로, 배터리 용량을 증대해 주행거리를 늘렸으며, 배터리 탈착 기능이 개선되어 보다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기존 PAS 1단계에서 PAS 4단계로 동력 보조 단계를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상황에 따라 전력 지원 정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페달링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해 배터리 효율과 주행 안정성이 뛰어난 PAS 방식의 장점과 전기의 힘만으로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는 스로틀 방식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안전

성이 입증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차용했으며, 전작 대비 배터리 용량을 업그레이드 했다. 신규 7.8Ah 시트 포스트 일체형 배터리로 1회 3시간 충전에 최대 80km 주행이 가능해 출퇴근이나 등하교는 물론 근거리도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남녀노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에 블랙 컬러와 라이트 민트 컬러를 함께 출시해 취향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바구니, 짐받이, 팬더 등 생활 편의 기능은 기본으로 갖췄다.

■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근거리 또는 중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개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았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모빌리티(E-mobility)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소형자동차나 전동 휠체어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법제적 관점에서는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자동차와 보행과 유사한 기능 및 성격을 갖는 전동 휠체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의 자동차가 1인 운송수단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동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종래 내연 기관 자동차위주의 운송수단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6] 동사 퍼스널 모빌리티 주요 제품

모델	형상	특징
팬텀이지 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킥보드 형태 프레임으로 승하차가 용이. - 전동 스쿠터 형식의 안장이 장착돼 앉아서 이동. - 한번 충전에 최대 40km까지 이동. -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기능 탑재. - 가격 : 85만원
팬텀 시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링없이 전기로 주행하는 시티형 스쿠터. - 보쉬의 고성능 모터 적용으로 내구성 우수. - 14인치 광폭타이어와 듀얼 서스펜션 적용. - 가격 : 97만원

*출처: 삼천리자전거.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동사의 팬텀 이지 모델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팬텀 이지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텀 이지는 킥보드 형태로 승하차가 용이하고, 전동 스쿠터 형식의 넓은 안장이 장착돼 먼 거리도 앉아서 이동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에 최대 40km까지 이동할 수 있어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행 방식은 스로틀 전용으로 스쿠터와 같이 핸들바 레버 조작만으로 모터를 작동할 수 있어 작동이 쉽고, 스로틀 그림을 7~10초간 지속 누르면 주행 속도를 일정 유지




하는 크루즈 기능이 실행돼 장거리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동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군을 확대 하기 위해 전동 스쿠터 제품인 팬텀 시터 10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였다. 팬텀 시터 10는 페달링 없이 전기로 주행하는 시티형 전동 스쿠터로 체력 소모 없이 근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일반 오토바이형 스쿠터는 제품 등록, 보험 등 이용 시 필요 조 건이 많고 조작이 복잡한 반면, 전동 스쿠터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같이 면허만 소지하면 바로 주행 가능하다. 팬텀 시터 10은 유명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보쉬의 고성능 모터로 우수한 내구성과 품질력을 자랑하며, 장시간 주행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퀴면이 지면과 맞닿는 부분이 넓은 14인치 광폭타이어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듀얼 서스펜션을 장착해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감을 선보인다.

■ 안전과 디자인을 강조한 어린이 자전거 라인업 강화

코로나19 이후 어린이 자전거 판매량이 급증세다.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에게 대표적인 비대면 운동기구로 자전거를 구매해 주는 부모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운동이 부족한 자녀들을 위해 1인 운동으로서 자전거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출처:뉴스1)

[그림 7] 동사 어린이 자전거 주요 제품

모델	루트	딩고	겨울왕국2
형상			

*출처: 삼천리자전거.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어린이 자전거를 고를 때 가장 우선시할 부분은 바로 안전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자전거의 부품인 브레이크가 밀리는 현상 없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핸들이 어린이의 손과 잘 맞는지, 아이가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 자전거는 보통 네 종류의 크기로 분류된다. 자녀의 키가 89~100cm라면 14인치, 99~107cm는 16인치, 107~116cm 사이라면 18인치, 115~130cm라면 20인치의 바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평균 신장 수치를 고려한 추천 사이즈이므로 키 외에도 팔과 다리 길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의 대리점에 방문해 시승해보고 아이가 핸들을 잡고 페달을 굴리는데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동사의 대표적인 어린이 자전거는 유아적 디자인을 탈피하고 성인 산악자전거의 느낌을 살린 루트(ROOT)와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클래식한 딩고(DINGO) 그리고 디즈니 캐릭터를 인쇄한 겨울왕국2 등이 있다.

심플하고 모던한 MTB 디자인 컨셉인 루트(ROOT) 모델은 어른스럽고 도시적인 디자인에 포인트 컬러를 더해 디자인을 강조했다. 기존 블랙과 화이트 컬러와 함께 트렌디한 민트와 블루 컬러도 출시했으며, 블랙과 화이트 제품은 핑크, 네온그린 등 포인트 색상을 더해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강조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형태의 프레임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해 안정적이며, 인체공학적 안장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파스텔 컬러로 인기가 있는 덩고(DINGO) 모델은 프레임을 보다 부드럽게 디자인하고 곡선 프레임으로 승하차가 편안하다. 또한 부드러운 느낌의 레트로 디자인을 강조한 브라운 컬러의 안장에는 보조 손잡이가 장착되어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작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으며, 바구니까지 추가되어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겨울 왕국2 모델은 휠 커버와 체인 케이스, 바구니 전면부 등 디자인의 주목도가 높은 부분에 주요 캐릭터인 엘사와 안나의 모티브를 적용하여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마치 겨울왕국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으로 즐겁게 라이딩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한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를 1993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 기준 특허와 실용신안 11건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 연구인력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사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특허등록 등을 통해 IP를 보호하고 있고, 핵심 특허를 활용하여 관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량 기술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기술적인 진입 장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사 보유 지식재산권의 효과를 모방하기는 어렵고 실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바, 사업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재무분석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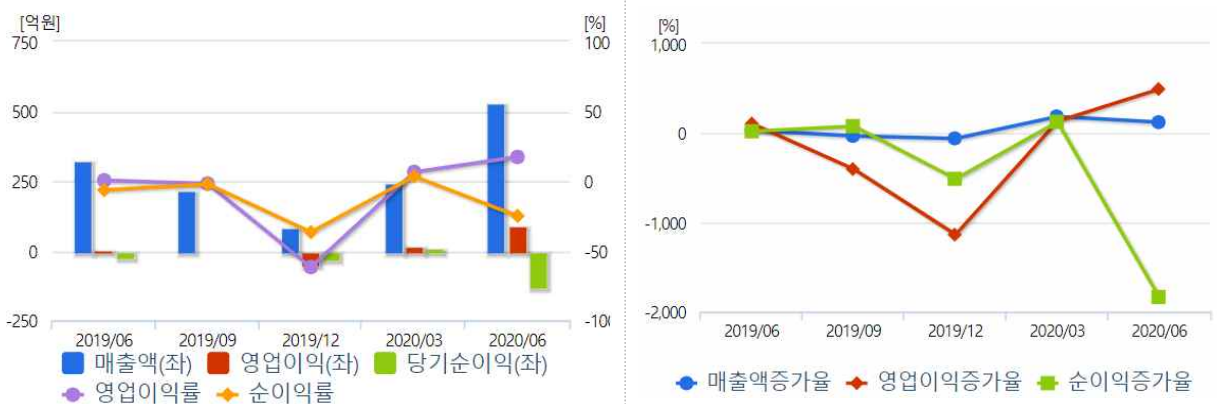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의 언택트 환경에서 전기자전거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770.1억 원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유동자산이 증가 추세이다.

■ 2020년 상반기 흑자전환

동사의 최근 4개년 매출액은 2016년 1,427.7억 원, 2017년 1,110.6억 원, 2018년 796.1억 원, 2019년 871.1억 원으로 감소세였으나, 2020년 2/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한 529.9억 원을 시현하였고,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770.1억 원을 시현하였다.

[그림 8] 동사 분기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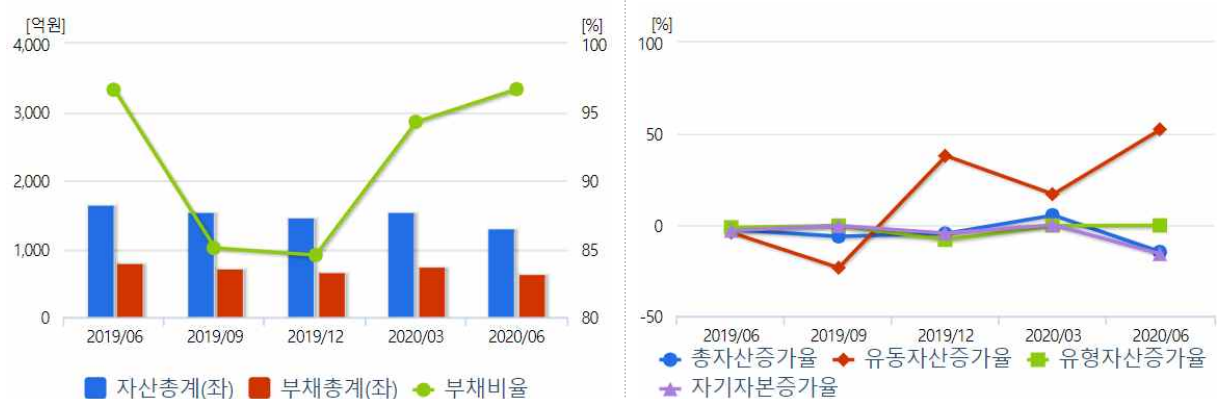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출처: 네이버 금융

[그림 9] 동사 분기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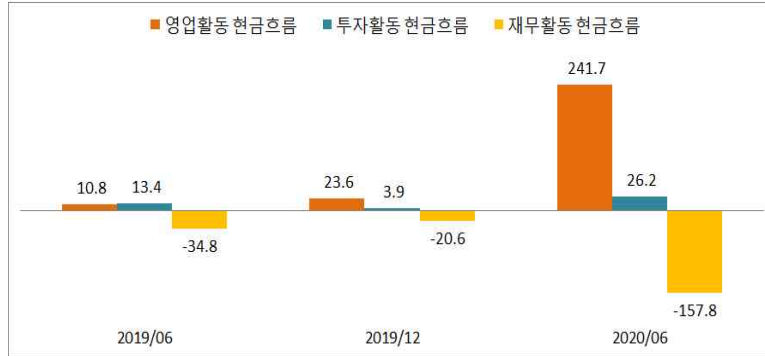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금융

매년 하락세를 보이던 동사 매출은 코로나19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전기자전거 등의 제품 수요 증가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매출액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0] 동사 분기 현금흐름 분석

(단위: 억 원)



*출처: 사업보고서(2020),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구성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영업이익 또한 대폭 증가하였다. 동사의 최근 4개년 영업이익은 2016년 57.9억 원, 2017년 2.5억 원, 2018년 -169.8억 원, 2019년 -82.4억 원으로 감소세였으나, 2020년 2/4분기 영업이익은 90.9억 원,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한 106.3억 원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하였다. 그러나 지분법 손실에 따라 2020년 2/4분기 당기순이익은 -133.0억 원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관계사인 참좋은여행으로 인해 지분법에 따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회계상 영향으로 실제 현금 유출은 없으며,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유동자산이 증가하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개선되었다.

Peer 그룹 분석

동사의 2020년 2/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한 529.9억 원을 기록하였다. 업계 2위 알톤스포츠는 같은 기간 37% 성장한 151.3억 원을 시현하여 동사 대비 매출 성장률이 27% 낮은 실적을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전거 열풍에도 업계 1, 2위 기업의 매출 성장세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변화 대처능력으로 보인다. 동사는 경쟁사 대비 수요 견인에 따른 시장성장세에 동사의 다양한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니즈에 신속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자전거 시장이 호황이 되어 전세계적으로 부품조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시에 부품을 조달하여 소비자 니즈가 판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매출 신장의 폭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Peer 그룹 분석

(단위: 억 원)

구분	구분	2019 2/4분기	2019말	2020 2/4분기
삼천리자전거	매출액	323.3	871.1	529.9
	영업이익	1.4	-82.4	90.9
	당기순이익	-21.2	-83.2	-133.0
알톤스포츠	매출액	110.5	311.9	151.3
	영업이익	-16.1	-106.2	29.6
	당기순이익	-19.4	-122.2	28.9

*출처: 네이버 금융,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사업 다각화로 실적 견인

개정된 자전거도로법과 모빌리티 공유시장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 기대

■ 개정된 자전거도로법으로 전동킥보드 매출 증가 예상

[그림 11] 동사 전동킥보드 모델 데프트 30



*출처: 삼천리자전거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자전거도로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전력을 이용한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킥보드 등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했지만 12월부터 전면 허용되며, 최대속도 시속 25km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금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의무 착용 등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을 위한 규정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법률상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동킥보드가 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이 커지며 동사를 포함한 전동킥보드 제조회사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모빌리티 공유시장의 급증세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시장은 2020년 4월 기준 21만 명으로 2019년 4월 대비 약 6배 증가하였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지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킥고잉’ 사용자인 경우 3월 대비 79%, ‘짱짱’은 79% 증가하였다. 그리고 저탄소 추세에 따라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동킥보드는 작고 경제성이 높으며 대중교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개인교통 솔루션으로 주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 전동킥보드 카테고리 앱 사용자 현황



*출처: MOBILEINDEX

■ 유모차 및 카시트 사업의 확대

[그림 13] 동사 유모차 케디



*출처: 삼천리자전거

0~14세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산업인 경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며 출생아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으로 엔젤산업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출처:IBK경제브리프)

동사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브레베베를 중심으로 유아용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카시트와 유모차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2020년 초에 출시한 유모차형 접이식 세발자전거 신제품 케디(kedi)는 아이와 엄마가 외출 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모차형 세발자전거 전문 기술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집약했다. 특히 성장단계별 4단계 변형 시스템인 '유모차 마주보기 단계', '유모차 단계', '보호자 어시스트 단계' '독립형 세발자전거 단계'까지 성장 단계별로 제품을 변형해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해당사항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4]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2020년 10월 14일 기준)



*출처: 네이버 금융